

>>> 봉사의 정신



대한신장학회 이 사 장
윤 건 일

존경하는 신장학회 회원님, 그리고 환우여러분....

신장학회 이사장으로 취임한지 어연 일년이 되었습니다. 그동안 학회 활동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으로 큰 대과없이 지내왔습니다.

그동안 여러 분야 위원회를 통하여 각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학문의 연구 발전과 투석개원의들과의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. 특히 건강과 신장의 홍보책자 발간은 모든 회원뿐 아니라 환우들에게도 높은 호응을 받게 되었고 신장학회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

그러나 그동안 느낀 점도 많았지만 특히 투석 환우들을 접할 때 마다 왜 우리는 삶의 질이 선진국 수준이 도달하지 못하는가를 고민하곤 하였습니다. 회원님들의 적정 진료 평가나 humanitalism을 돌이켜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.

다른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교육시키고 무엇이 환우들의 best quality of life 인가를 진실로 생각하고 반성해야 합니다.

개원의의 교육을 위한 신장학회 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도 이러한 취지를 일부 반영하는 것입니다. 물론 의료정책의 비현실성, 일부 의사의 무절제한 행위에 대하여 신장학회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 회원님들이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봉사하고 존경심을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
봉사의 정신은 바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필수적인 것입니다.

신장과 건강의 책자는 지식의 전달은 물론 봉사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될 수 있고 앞으로 각 지역별로 모든 환우에 대한 무료강좌, 질의응답, 경제 지원, 더 나아가 장기 이식 공유자의 부부교환 등으로 사회적인 공 감대를 형성하여 보건 정책 입안자들에게 교감을 얻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.

끝으로 신장과 건강 봄호가 나오기까지 힘써 주신 조원용, 정해일홍보이사님과 함께 여러 협력업체 여러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